



### 안전먹거리 지키기 · 유기농 명인을 만나다

(17)보성 청룡다원 대표 '최창돈 명인'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랜 시간 공들여 온 유기농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보성군 보성읍에서 청룡다원을 운영하는 최창돈 명인(왼쪽). 그가 재배 가공해 판매하는 녹차들.



## 자연순환 농법으로 키워...국내 첫 녹차 완제품 FDA 승인

보성군 보성읍에서 청룡다원을 운영하는 최창돈(80)명인. 최 명인은 친환경 농업 시작 이전에 광주석산고등학교에서 생물교사로 근무했다. 또한 산악인으로 지난 1971년 호남 최초 히말라야 마나슬루 원정대원으로 선발돼 히말라야를 다녀왔다. 이후에도 교사와 산악인 생활을 병행하던 1990년대 초 퇴직 후 노후에 대한 고민을 이어 가던 도중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고향 땅이 떠올라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녹차 친환경 재배를 시작했다. 그 당시는 교사 재직 당시로 주말마

다 이곳에 들러 냉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을 심는 등 녹차 재배를 위한 주변 환경을 가꿨고 이후 2004년 녹차 유기농 인증을 받으며 명예퇴직해 본격적인 친환경 농업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1만1천㎡(3천300평) 정도의 땅에서 녹차를 생산하며 관리는 자연순환 농법을 활용하고 있다. 친환경 차나무 재배를 위해 자운영, 클로버, 헤어리베치 등 콩과식물을 이용해 토양 비옥도를 올리고 자연순환 농업(생물학적 방제+콩과식물 환원)으로 차나무 스스로 병충해에 강해질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자운영·클로버·헤어리베치 등 콩과식물 활용해 관리 우리차 품평대회 은상 수상...명차 분야 지식 전수도 맞춰 차 농업을 꾸려가고 있다. 이 같은 친환경 농법을 지속 유지해 온 결과 지난 2022년 '전남도 유기농 명인' 제28호로 지정됐다. 명인의 녹차는 수확부터 가공까지 판매 첫해부터 입소문이나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명인의 반열에 등극하기까지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07년 보성 농약 녹차 파동이

이러한 뒤 관행농과 유기농 농가 모두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유기농 녹차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08년 녹차 완제품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 FDA 식품안전검사서에서 5개 품목(세차·우전·중차·대차·가루녹차)이 합격해 위기를 극복했다.

이외에도 제2회 대한민국 차 품평회에서 입상, 우리차 품평대회 은상, 초의 문화연구원 보성군수 표창 등을 수상하면서 녹차 장인으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지난 2004년부터 벤처농업대학 등에서 유기농 관련 강의를 시작했으며, 친환경 명차 분야에 대한 전문 기술과 지식을 지역 농업인들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향후 계획은 꾸준히 유기농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가업 승계를 하는 것이다. 최 명인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당

시 관리가 하나도 안 된 땅이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며 “나이가 있어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요즘 가장 큰 고민으로 후계에 대한 생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인 이전에 산악인으로 항상 정상에만 있을 수 없어 안전한 하산을 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자식이 있어 기술 전수 등을 수년에 걸쳐 잘 알려줘 앞으로 청룡다원의 모습을 잘 지켜나갔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안태호기자

### 광주은행 X 토스뱅크 '함께대출' 3천200억 돌파

출시 100일만 달성...최저 연 4.75% 대출금리 큰 역할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공동 출시한 '함께대출'이 지난 8월 27일 판매 이후 100일째인 지난 4일까지 3천200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대출'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혁신금융상품으로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힘을 합쳐 협업과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출시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이다. 공동의 상품 출시로 광주은행은 마케팅 비용을, 토스뱅크는 운영비를 줄일 수 있어 고객에게 비용절감의 혜택을 돌려줄 수 있었고, 연간 약 33억원의 이

자비용 절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3천200억원 돌파의 배경에는 가입 대상과 대출한도는 물론이고 최저 연 4.75%(2024.12.05. 기준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큰 역할을 차지했다. '함께대출'을 통해 광주은행과 토스뱅크는 평균적으로 매일 100여명에게 고객당 약 3천100만원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기존에 단독으로 제공하던 신용대출과는 다르게 양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한 결과 좀 더 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광주은행 자체적으로

는 심사가 어려웠던 약 1천500명의 고객이 '함께대출'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박종준 광주은행 부행장은 “함께대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금융당국과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고,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더 많은 금융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대출' 가입 대상은 현재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증빙 연소득 1천만 원 이상인 급여소득자로,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억원이다. /임채만기자

### 뉴콘텐츠아카데미 2기 글로벌 인재 모집

콘진원, 오는 17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글로벌 수요에 맞춰 콘텐츠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뉴콘텐츠아카데미' 장기과정 2기 글로벌 인재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뉴콘텐츠아카데미는 기술 기반의 콘텐츠 창작·제작과 연관된 국내의 선도기업과 교육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무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장기과정 2기 글로벌 인재 모집 전형은 기획, 개발, 아트 등 총 20명 규모로 모집하며 이들은 총 1년 8개월에 걸쳐 ▲직무 전문성 향상 교육(1년 차) ▲

국내외 유수의 산학 연계를 통한 교육생의 취·창업(2년 차) 등을 지원받는다. 1년 차에는 ▲언리얼 엔진 ▲블렌더 ▲돌비 애트모스 등 콘텐츠 창작·제작에 필수적인 직무별 툴에 관한 기본교육 ▲버추얼프로덕션 ▲가상시각화 ▲인터랙션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기획 및 제작 실습 기반의 교육을 운영하는 심화전공(모듈)이 진행된다. 특히, 실습 및 PBL(Project-Based Learning) 기반의 팀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심화전공은 뉴콘텐츠아카데미의 차별점 중 하나로, 현장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최신 산업의 수요와 추세를 반영한 AI 기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2년 차에는 1년 차 학습 과정의 직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대학 연계 공동 프로젝트 수행 ▲신기술 콘텐츠 선도기업과의 프로젝트 연계 인턴십 ▲분야별 퍼실리테이터와의 협업과 프로젝트 수행 등 교육생의 취·창업 기회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전개된다. /안태호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정문화 확산 캠페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3대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 유지하기
- 돌이 뽕뽕이, 커튼으로 틈새 열 손실 줄이기
- 센 내복, 무릎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